

<2020년 3월 1일 주일 잠언>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지면에서 흩어버리셨다

본 문 창세기 11장 1~9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전초>

1. <사람들>끼리도 ‘자기가 한 말’ 과 ‘상대가 한 말’ 이 다르거나 안 맞으면, ‘생각’ 도 ‘행실’ 도 안 맞게 되고 결국 흩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과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마음’ 과 ‘행실’ 과도 안 맞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지면에서 흩어서 없어지게 하신다.
2. 하나님은 그 뜻을 이 땅에 펴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만 데리고 시대마다 그 뜻을 펴나가신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3.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맞는 뜻을 펴실 때는 절대적으로 ‘그 뜻과 구상에 맞게 동참할 사람들’ 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상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4. 하나님께서는 뜻을 펴실 때 <절대적인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지켜야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만 데리고 역사를 해나가신다.
5. 오늘 성경 본문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맞지 않게 ‘자기 주관’ 대로 생각하면서 답을 쌓았다. 하나님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시며 그들의 언어를 흠으셨고, 사람들은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지면에서 흩어져버렸다.
6.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사는데 있어서 가장 큰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다. 이것이 <삼위와 주와 일체>되는 것이다.

7. <자기 주관>대로만 행하면, 사람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하고 행하니 서로 통하지 않고 흩어진다. <생각>이 다 다르니,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8. 하나님의 절대적 뜻을 펴실 때는 절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데리고 펴신다.

9. 하나님을 주를 믿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 시작>

10.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본래에 늘 듣던 말씀이고, 역사의 거울이 된 말씀이다. 그러나 시대가 또 오니,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다.

11. 야곱 때 ‘본 처에서 난 족속’ 과 ‘후 처에서 난 족속’ 으로 갈리었으나, <요셉>을 통해 갈린 족속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열두지파로 형성되었으나, <예수님>을 통해 양과 염소와 사자와 이리 같은 성격의 족속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이상세계>를 이루었다.

12. <시대의 하나님이 보낸 자>는 나뉘진 것을 합해놓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든다.

13.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를 보내서 무엇을 했는지 보아라. 구시대와 신시대, 즉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하게 하였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480년 동안 싸웠는데, 예수님이 선생을 데리고 직접 가서 이야기하여 40일 만에 하나 되게 되었다.
14. <사명자>는 ‘사명의 일’을 해서 아는 것이다. 간판이 있으면 간판만큼 속에 잔뜩 있어야 된다.
15. <메시아>는 ‘평화의 사람’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돼서 역사가 가고 있다.
16.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들이 <시대의 누구를 상징>하는가 말씀을 잘 봐야 된다.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
17. 하나님께서 “신부들이 내가 말하는 소리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아직도 너희는 보낸 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기는 들어도, 무슨 일을 닥치면 그때서야 “아~ 진짜 말씀대로 되네?” 한다. 뼈가 저리고 가슴이 와 닿게 본인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는 <신부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상과 정신들이다.
18. 확실히 알아야 된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슴이 와 닿게 깨달은 자>는 제자가 되어 시대의 주인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일반 사람이 됐고 일반 구원을 받았다.
19.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얼마나 확 받아들이고, 얼마나 확 행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뼈가 저리게, 가슴에 충동이 오게 충격을 받으며 행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제대

로 들어라.

20.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렇게 못하면, 그들도 같은 취급을 받고 <생각>을 훌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생각>을 훌고 <말씀>을 훌으면, 서로 맞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님>과도 안 맞게 된다. 그러면 <주관권>을 벗어나게 된다.

21. 본문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아주 <야심>이 강하고, <프라이드>가 강하고, <특별한 족속>을 만들려고 했다. 하늘까지 치솟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자기 외엔 없다. 본인이 최고다.” 하며 <특별한 족속>같이 하면서 세상을 잡아버리자고 나갔던 족속들이다. 이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며 <특별한 이름>을 내기 시작했다.

오늘날 종교들을 봐도, 아주 <특별한 이름>을 지어놓고 <자기 이름>을 내놓으려고 한다. “세상을 통일 시킨다”, “세상을 신세계로 만든다.” 하며 하고 있다. ‘어떻게 저런 비(非) 진리를 따라갈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이해가 안 되지만, <종교>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따라간 것이다.

22. 우리와 같이 <진리>를 알면 절대 안 따라간다. <아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 예수님과 성경과 성령을 제대로 믿으면, 기독교인들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모르니까 따라가는 것이다.

23. <보고 천사들>이 단체, 개인, 종교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나님>께 다 보고한다. 마치 왕 밑의 암행어사 같이 처리하고 보고한다. <하나님>은 보고를 다 받으시고 어떻게 할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땅에 보낸 자>로 선포케 하시고 감행하신다.

24. 하나님은 항상 ‘심판’ 하실 때 내려오시며 <그 시대 중심자>에게 말씀하신다. 소돔 땅을 ‘심판’ 하실 때도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메시아 때는 <메시아>에게, 선지자 때는 <선지자>에게 외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알려주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1장 5절 :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25. ‘심판’ 할 때는 <언어>를 혼잡 하게 하신다. 이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고 <말>과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으니 그러하다.

(창세기 11장 7절 :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26. <하나님 이름>을 날려야지,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 교세 이름>을 날리고, <자기>를 과시하면 안 된다. 비(非) 진리로서는 하늘을 뚫는 탑을 세울 수가 없다.

27. 종교는 <말씀>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종교와 단체들>은 처음에는 한동안 가고 자기주관대로 뭉쳐지나,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이 아닌가?’ 하다가 서로 싸우면서 흩어진다.

28. 섭리를 나간 자들도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곳이 본인의 주관과 맞지 않다며 나갔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와 하나가 되지 않으니, <그들의 생각의 언어>를 혼잡 시켜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29. 절대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생각>대로 안하면, 가다가 언어 혼잡이 생긴다.

30. <절대적인 진리>가 <절대적인 자>를 창조하고 만드는 것이다.

31. 선생은 산골짜기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몰랐어도, <하나님의 진리>만큼은 확실히 알았다. <진리>를 몰랐을 때는 혼잡 돼서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나요?” 하며 언어가 혼잡 됐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싫다고 했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이치와 모든 것을 깨닫고 보니, “아, 맞구나.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잘 살고, 못 하면 못사는구나” 하였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달으니, 하나님과 <언어>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딱 들어붙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다.

32. 하나님은 <땅>에서 역사를 편다. <공중>이 아니다. “땅에서 펴는 역사다.” 말씀했을 때, <언어>가 혼잡 되면 안 된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선지자 때도, 다윗 때도, 아브라함 때도 그러했다. “맞구나.” 하고 따라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혼잡 되고 있다.

33. 종교의 세계가 아무리 단체가 크고 인원이 많아도, 하나님과 <언어>가 혼잡 되면 안 된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34.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듯, 인간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 하는 것이다.

35. 선생이 2000독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하다못해 100독은 해야 된다. 성경을 700번 볼 때까지 말씀의 근본을 몰랐다. 그 정도로 어렵다. 800번, 1000번 보니까 뭔가 깨닫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었다. 결국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말씀이 내 육신이 돼서 완전히 사상이 절어버렸다. 어떤 세상의 학문, 정치, 예술이 절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 절었다. 그러므로 생활이 돼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대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신다. 항상 온전한 것을 가르치는 설교를 40년 동안 해왔다.
36.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 해당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 그 말씀을 하시며 “이와 같이 이러하니라.” 하신다.
37.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흘렸다. 사람도 사람끼리도 서로 <언어>가 안 맞으면, 서로 흠어진다. 결혼한 사람도 서로 <언어>가 안 맞으면, 말 못하겠다고 서로 헤어지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한다.
38. <언어가 안 맞다>는 것을 깊이 이야기하면 <심정이 안 맞다>, <마음이 안 맞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다.
39. 항상 <더 아는 자>가 있고 <덜 아는 자>가 있다. <아는 사람>의 말을 빨리 받아들이면 통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하면 서로 안 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더 알 것이 아니냐.
40. 하나님은 <야심>이 많고, <프라이드>가 강하고, <명성>을 높이려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자들을 <언어>가 달라서 못 보신다. 절대 용납지 않으신다.

41.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흠어버린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죽음을 내걸고 외친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외친 것이다.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42.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 허신다. 개인, 교파, 어떤 시대, 민족, 세계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상과 주장>은 다 헛어버리신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에 일체 되지 않은 것들은 허물어버린다.

43. <야심>이 아주 강한 자들은 ‘눈’만 보아도 아주 표가 난다. 야심에 가득차서 눈이 빨갛다.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라 <자기 주관>이 강하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봐줄 테니 부지런히 회개하라” 하지만, 너무 안 될 때는 민족과 백성이 알아버린다.

정치를 할 때, <명예>를 위해서나 <야심>으로 해선 안 된다. 종교지도자도 마찬가지다.

44. 꼭 <죽는 사람>만 순교가 아니라 <안 죽어도 참고 견디는 것>이 순교가 아니냐. 사도바울이 “너는 매일 죽어라” 한 것은 ‘성격’을 죽이고 ‘행동’을 죽이고 ‘나쁜 것’을 죽인다는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이처럼 살지 못하고 너무 ‘야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차고 세상을 다스리려 한다.

45.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아장 걸음 걸으며 심부름 하며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고 “이전 봐두면 안 되겠다. 내려가 보자.” 하시고 내려오셔서 심판하신다. 의인들과 온전한 자만 남을 것이다.

46. 성경을 잘 보아야 한다. 이 시대로는 <노아>를 ‘노아’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족속들의 우두머리’를 얘기한 것이다.

한 족속에서 많은 족속이 나왔다고 한 것처럼, <이단 족속>을 보면 계속 ‘이단 족속’을 낳는다. <이단 족속> 중 ‘회개한 족속’이 하나도 없었다. 항상 <이단>은 ‘이단의 족속’에서 난다.

47. <같은 죄>는 ‘같은 형벌’을 받는다. <도둑질 한 자>는 ‘도둑질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고, <폭력꾼>은 ‘폭력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듯 그러하다.

48. <성전을 파괴한 죄>는 굉장히 크다. 전쟁 때에도 <성전>은 건들지 않는다. 유럽 전쟁 때도 하나님이 무서우니 <성전>은 절대 때려 부수지 않았다. 유럽 전체의 종교가 기독교로 국교였기 때문에 <성전>만큼은 못 건들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곳은 <성전>을 우습게 때려 부수는데, 그것은 큰일 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49. <자기 주관>대로 행하면 ‘독선주의’요, ‘독재주의’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들은 <자기 주관>대로 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안 하니, ‘독재주의’인 것이다.

50. 지금은 지구상의 지도자들이 ‘독선주의’로 하면 안 될 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행해야 된다.

51. <자기 중심>으로 하는 자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다. ‘휴거’가 안

되고 ‘구원’ 이 안 된다. 자기 스스로 혼자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이다.

52.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그 보낸 자의 주관대로만 해야 된다.

53. <인간의 성전>을 때려 부순 것이 죄다. ‘육신’ 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다. “너희가 나의 전이니라. 생명의 전이니라.” 하셨다. 핍박하고, 미워하며, 자기 주관대로 다스리고, 자기 주관대로 행하는 것이 ‘때려 부수는 것’ 이다. 진리로 잘못 가르치고, 자기 주관대로 독선으로 가르치는 것이 ‘때려 부수는 것’ 이다.

54.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자기 주관>대로 백성을 가르치고 사상을 넣으면 안 된다. 그것이 ‘때려 부수는 것’ 이다.

공산주의들이 그 사상을 넣고 세뇌시키니, 결국 그 민족들이 망하게 됐다. 그 주관권은 존재를 못하니 하나님이 깨우쳐주셨다.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해주었다. 계속 전쟁으로 괴로움을 당하니, 전쟁을 안해야 안 괴롭겠구나 깨닫게 되어 지금은 전쟁을 안 하고 있다.

55.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께 바쳐라. <그 민족 것>은 ‘그 민족 것’ 이고, <자기 민족 것>은 ‘자기 것’ 인데, <남의 민족 것>을 잡아당기는 것은 마치 남의 이불을 잡아당기는 격이다. 그러면 가만있지 않는다.

온 지구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서로 생각하며 해야 된다.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이건 내 것이다.’ 하면 안 된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56. <지금>은 시대가 <옛날>과 다르다. 인격의 역사, 민주주의, 자유주

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때이다. 그러니 자기 맘대로 말하는 것이 안 통하는 시대이다. 거만하게 돌아다니면, 백성들이 자기 주관의 주권자라도 싫어한다. 지금은 하나님이 시대 말씀이 갔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 이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를 하면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즉시 실행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내려오신다.

57. <족제비>가 ‘조그마한 것’ 을 잡아당기다가 ‘땃’ 에 걸려 죽는다. ‘하나님의 땃’ 이 있다. ‘양심’ 을 보려고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땃’ 으로 해놓은 것이 있다. ‘땃’ 에 걸리면, 그로 인해서 ‘죽음’ 이 초래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58. <자기 주관>대로 해서 <자기 성전>을 파괴시키면 안 된다. <자기 성전>, 즉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59.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면 안 된다. 주신 교회들을 관리하고 자꾸 살펴야 된다. 가만 놔두면, 파괴시키는 것이다.

60.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 성자가 가면서 사준 것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집’ 으로도 보지만, ‘하나님의 애인’ 으로 보는 것이다. 늘 가꾸고 멋있게 만들고 신부단장 하고, <본인>도 그렇게 만들어놔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고 구미가 당기는 것이다. 보던 것만 늘 보면 별로다.

61. <백성들>이 착할수록 막 쥐면 안 된다. <종교 지도자들>도 <따르는

사람>이 착할수록 막 쥐면 안 된다.

마치 하와 같이 착하고 순진한 백성들이 있다. 지상에 보면 ‘내적 성품’을 가진 민족들이 있다. <일본>이 ‘여자 같은 성품의 민족’이고, <대만>은 ‘남자 같은 성품의 민족’이다. 그럴수록 지도자가 막 쥐면 안 된다.

62. <백성들>이 잘 따라올수록, <지도자들>이 잘해줘야 된다. <섭리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순진한 자’는 막 쥐고, ‘조금 까다로운 자’는 그냥 놔두고 하면 안 된다. 다 다 똑같이 풀어주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해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이기에 그러하다.

63.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로 모두 행해야 ‘하나님 뜻’이 펴진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고서는 역사가 펴지지 않는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새로운 역사’가 펴지지 않았다.

64.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 중심자, 자기 사상자, 자기 독재주의자’다.

65.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어버리면,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는다. 그러면 따르는 자들도 모두 안 맞아서 ‘혼잡’을 일으키게 만든다. 하나님의 양심으로 주는 말씀, 만물로 주는 말씀과 안 맞으면, 결국 흩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말>이 안통하면 끝나는 것이다.

66. <이단 종교>는 그때마다 계속 말씀을 바꾸고 교리를 바꾼다. 그것은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 자의적인 뜻’을 이

루는 자들이다.

67.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일절 똑같으시다.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구약의 말씀>을 더욱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전하러 왔다” 하셨다.
68. <구약>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율법 말씀’ 으로 <구약 세계>를 창조하였고, <신약>도 ‘예수님이 준 일률적인 말씀’ 으로 언어 혼잡 없이 <신약 역사>를 창조하셨다. 새로운 시대 <성약역사>가 가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 을 가지고 똑같이 해나가신다.
69. 섭리역사가 시작한 지 40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였다. 바꾼 것이 없다. 기본적인 것은 신약과 똑같은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풀어주었다.
70.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말씀>으로 이 세상 섭리역사를 창조하시고 만든 것이다.
71. <말씀> 대로 ‘종교’ 가 형성된다. <말씀> 대로 ‘개인’ 도, ‘그 사람’ 도 형성된다. <말씀> 대로 ‘자기 육신’ 도 만들어지고 형성되지만, <말씀> 대로 ‘영’ 도 형성된다. <구약 말씀>을 들으면 ‘구약 식’ 으로 형성되고, <신약 말씀>을 들으면 ‘신약 식’ 으로 형성되고, <이 시대>는 ‘이 시대 말씀’ 대로 형성된다.
72. <형성>되는 것을 봐야 한다. ‘꿈’ 으로 보면 된다. ‘차원 높은 영’ 으로 보이기에는 어렵지만, ‘혼’ 으로 보이기에는 쉽다.
73. <말씀>은 혼잡이 없다. <새로운 시대의 말씀>은 ‘<구시대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는 것이다. <구시대 말씀>을 딱 끊어버리고 <새 시대 말씀>만 있는 역사는 없었다. <처음>이 다르고 <나중>이 다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74. 하나님은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 <언어>를 스스로 흠어지게 만들게 어명 하셨다.

75. 스스로 조심하라. 안 하는 자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해준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거기서 나올 때까지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이다. 죄 짐을 짊어지고서 회개할 때까지 계속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탄압과 형벌>을 받는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끝내 버려야한다.

76. <자기 중심>하는 것은 개인, 민족, 세계, 어느 시대든 하나님이 그 꼴을 안 보신다.

77. 말하기 전에 본인이 하는 것이다. 마치 마당에 부모님이 나오시기 전에 벌써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어야 되는 격이다. 그러면 쓸고 있구나 하고 들어가신다. 쓸어라, 쓸어라 해도 안 쓸면, 거기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

78. 누가 말을 잘 들었나, 안 들었나는 보면 안다.

79. 누가 고통을 받으면, '그 주관권'은 다 고통스럽다. <머리>가 고통을 받으면 '그 밑의 주관권'은 다 고통스럽고, <손>이 고통을 받으면 '머리'까지 고통스럽듯, '그 주관권에 있는 것'은 고통을 같이 받는 것을 깨달아라.

80.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가까이 못할 때,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

면 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까이 해도 된다.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경고장이요, 행하시는 일들이다.

81. 하나님 계명 중 제일 큰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이다. 즉 ‘신격화 하지 말라’는 말이다.

새로운 신흥 종교가 나타나면, 그 지도자를 ‘신격화’ 하고 하나님 같이 생각한다. 아무리 큰 자를 보내도 메시아밖에 안 되는 것이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구원시키라고 보낸 자’이며, ‘구원의 심부름 자’이다. 하나님을 그를 통해 하신다. 마치 <메시아>는 ‘마이크’ 같은 역할이고, <하나님>은 ‘전기’ 역할과 같다.

82.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욕 먹이는 짓은 안 된다는 것이다. <모르고 욕하는 것>은 ‘본인들의 죄’이지만,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는 자들이다.

83. 성경 본문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는 자들>이다. <노망한 자들>이다. 이는 시날 평지에서 자기 권세를 높이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흠으시니 서로 안 맞게 되어 각각 흩어지게 됐다.

84.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예수님 이름’을 이용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일이다. 이들 때문에 더욱 믿는 사람까지 욕을 얻게 되는 것도 있다.

85. 항상 <비정상>은 많이 된다. 그러나 <정상>으로 하면, 그렇게 빨리

안 된다. “메시아 예수님이 왔는데, 왜 많은 자들이 믿고 따라오지 않았나요?” 물으니, “그러면 비정상이다.” 하셨다. <정상>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크듯이 크지만, ‘유전자를 변동’시켜 곡식을 키우면 <비정상>으로 확 커버리는 격이다.

86. 수석에 대해 먼저는 ‘알고’ 수석을 사야 되는데, ‘모르고’ 사니 <가짜>를 사는 것이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 종교를 ‘배우고’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

87. 수석이 2만 점이 있다는 곳에 갔는데, <진짜>는 2점 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떤 자가 수석을 7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실제 값은 150만원 밖에 안됐다. 이와 같이 그냥 막 하면 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나나, <진짜>는 별로 없다.

88. (하나님) 너희 모두 신부들인데, 내가 단상을 통해 말씀하면 ‘진짜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며 가슴이 쿵 하게 깨닫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 못 깨닫게 말씀을 줄어버린다.

89. <자연적인 수석>은 평범하다. 자연이 만든 것은 자기 생각대로 된 게 별로 없다. 있다면 지구촌에 몇 개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자연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은 자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 때는 순수하다.

90.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순수하다.

91. 가짜들은 대개 중국에서 다 왔다. 코로나도 중국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들은 핵심지를 손대서 만든다. <손댄 것>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값이 헐하고, <손을 안 댄 것>은 보기 싫어도 비싸다.

92. <진짜> 하나가 <가짜> 만 개보다 낫다.

93. 우리는 <진짜>를 위해서 한 명 한 명 말씀으로 가르치고 시대에 돌아오게 하였다. 그러다 보니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너희는 적어도 풍부한 자들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너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지.” 하셨다. 한 명이 크다.

94. 그 많은 자들 중에서 <아담과 하와>를 골랐는데, 손을 댔다. <자연석>을 손대면 천만 원짜리가 10만원으로 떨어진다. 자기들이 스스로 행해버리니, <가치가 없는 자들>이 되었다.

95. 지금은 <많은 것>보다 <온전한 하나>가 낫다. 선지자들, 중심인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니, 그로 인해 역사를 편 것이다. 그들은 <자연석>과 같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믿고, 섬기고, 제물을 드리고, 갓출 것을 갓춘 자가 <자연석>과 같은 자들이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한 명으로 역사를 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선생>도 어디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산에 가서 예수님께 20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온전한 진리’를 배우니 ‘온전한 말씀’ 밖에 못하는 것이다.

96. <하나>가 낫다. <하나> 가지고 역사를 펴나가는 것이다.

97. 이 시대도 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씩 데려다 길러서 ‘복음을 넣어 주는 자들’이 되었다.

98.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펴신다. <온전치 못한 자>

로는 하나님 역사를 펴지 못한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안 된다.
〈온전한 자〉 하나가 필요하다.

99. 예수님께서 “너는 온전하라. 네가 먼저 수영을 배워야, 물에 빠진 자를 끄집어 낼 수 있다. 이게 구원이 아니냐.” 하셨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을 늘 배웠다.

100. 이 시기에 집에만 있지 말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동안 못한 일들〉도 하며 행해야 된다. 〈성경〉을 적어도 3번, 7번씩은 읽어봐야 된다.

101. 온전치 못하면, 〈언어 혼동〉이 돼버린다. 〈주관〉이 다르게 해진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을 못 해버리니, 오래가지 못한다.

102.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3초에 끝나는 것도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르고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진 심판〉할 때는 3초면 끝난다. 〈괴롭게 하는 심판〉은 한 때 두 때 반 때, 즉 6개월, 1년, 2년, 3년 6개월, 4년, 10년, 20년, 그리고 바로 혼잡하게 만들어 흩어 버리는 것도 있고, 5달 동안 진행되는 것도 있다.

103. 이전 종교역사를 보면, 〈세월호〉도 언어 혼잡이 됐다. 3년 동안 민족이 초상이 되고, 울면서 기도를 하였고,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이 딱 ‘6년 되는 해’ 이다. 하나님은 ‘그 날짜와 때’ 를 정해놓고 행하신다. 결국 하나님 ‘6년 만에’ 지상의 나라들을 손대시고 계신다.

104. 그냥 덤벙덤벙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르면 재미

가 없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권세와 위력>을 모르는 것이다.

105. <같은 죄>를 지으면 ‘같은 형벌’을 받는다. <같은 족속>은 ‘같은 짓’을 한다.
106. 이 시대 섭리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사명자>로 혹은 <시대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그것을 뼈저리게 못 깨닫고 뼈저리게 모른다. <말씀>을 늘 뼈저리게 생각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라. 말씀이 되어진 다음에서야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한다. <말씀>대로 되는지 몰랐느냐. 40년 동안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107. <이단들>은 그들의 말대로 안 되면 아닌 것이다. <진짜 임금>이라면, 그 말씀대로 되게 되어있다.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108. <말씀>대로 되나 보아라. 그 사람이 ‘사명자’가 맞는가 아닌가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지를 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를 보면 알 수 있다.
109. <하늘까지 솟은 사상과 명예>가 있으면 안 된다. 선생은 명예를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죽으면, 그것이 제일 크기 때문이다.
110.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 <자기 명예와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면 괜찮다.

111. <단상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아라. 선생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나무에게 죽으라 했는데 죽어버렸고, 살으라 했는데 살았다.

112. <반응>이 좋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이 있어야 된다. 말씀대로 되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지 말고, 그 전부터 <반응>을 가지고 해야 된다.

113. 섭리사는 지금 지나치게 조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반응이 너무 좋다. 지나친 반응까지 갖고 있네” 할 것이다.

하나님께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움츠리고 있는 것인가요?” 물어보니, 하나님은 “내 몸이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 하셨다. 적당하게 잘 한다는 것이다.

114. 성령님은 “<몸뚱이>는 움츠리고 있어도, <마음>은 움츠리지 말아라.” 하셨다.